

한라시론



유 동 형
편편잡(진로/취업컨설팅) 대표

가족이란?

추석 연휴라서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혼자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근거리 여행 일정을 잡았다. 어머니를 보니까 나이가 드시면 빠르게 거동이 불편해져서 차도 못 타고, 여행도 못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서다. 근거리 여행을 다니는데 갑자기 차가 덜컥거리며 긴급견인 서비스를 요청했다. 가족여행에 차가 고장 나니까 참으로 낭패였다. 10분도 안 돼서 견인차가 오고 가족들은 택시로 이동하고 나는 견인차를 타고 갔다. 차를 타고 가면서 기사님과 같

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다들 명절에 쉬는데 24시간 대기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견인서비스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을 말씀해 주셨다. 365일 24시간 항시 콜이 뜨면 달려가야 하니까 개인 시간이 없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했다. 한 구역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데 수입이 700 정도이고 기름값 빼면 대략 500 정도 된다고 했다. 개인 시간이 없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니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아내가 일단을 지금 일을 그냥 계속하라고 해서 지금도 이 일을 한다고 했다. 아이는 아직 없고 맞벌이인데도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가장 견인차가 오고 가족들은 택시로 이동하고 나는 견인차를 타고 갔다. 차를 타고 가면서 기사님과 같

다고 했다. 자신 같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불쌍하다고 했다. 오래전에 노숙자분들 자활훈련을 했던 적이 있다. 우리가 서울역 같은 곳에서 지나가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면 우리 주위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그곳에 오게 된 분들이다. 이분들이 다시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직업상담, 직업훈련을 하는 일을 했다. 재기여부를 결정하는 한 가지 주요한 요인이 있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특히 부양가족 여부가 중요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쉼터 시설에 있는 것을 숨기면서까지 학비, 생활비를 보내는 것을 봤다. 성인이 되기까지는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

다. 다른 분들은 하루 벌어서 술을 드시고, 담배를 사서 피우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약처럼 돈이 모으셨다. 자립하시려고 1년에 몇천만원까지 모으시는 것도 봤다. 아들이 대학생 학비를 대기위해서 밤낮없이 일하셨다. 이분은 이렇게 1년 동안 기반을 마련해서 재기에 성공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틸 수도 없고, 우리를 버티게도 하는 힘이 가족이었다. 긴급출동 기사님도 오늘을 사는 것이 힘들지만, 노년은 노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중고생은 중고생대로 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는 마찬가지 같다. 오늘 하루의 삶이 힘들 때 가족의 사랑스런운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힘내게 한다. 가족이란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사설

4·3 보상금 너무 더더 개선책 강구해야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속도가 너무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배정된 예산 집행이 지금까지 겨우 6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4·3 보상금 신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신청 순서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접수받고 있다. 그런데 4·3 보상금 지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속도를 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송재호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제주4·3 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급 결정 건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1272건이다. 지난해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했다. 올해 배정된 4·3

보상금 예산은 1935억원이지만 9월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192억원(61%)에 그쳤다. 보상금 지급 첫 해인 지난해에도 보상금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심사한 1875명 중 1368명(72%)에게만 지급이 결정됐다. 4·3 보상금 지급이 지나치게 느려서 우려스럽다. 행안부는 2026년까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 역시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안되고 있잖은가. 지급처럼 진행된다면 4·3 보상금 지급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격월로 열리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 등 보상금을 보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초중고교생 100명 중 4명은 이주배경 학생

제주지역 다문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3000명대를 기록했다. 이주 부모나 본인이 외국에 뿌리를 둔 다문화 학생을 '이주배경 학생'으로 일컫는다. 이주배경 학생은 올해 4월 기준으로 31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학생 7만8991명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100명 중 4명은 이주배경 학생인 셈이다. 이주배경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2174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690명, 고등학생 264명 등이다. 가족 구성별로 보면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포함해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등으로 나뉘고 있다. 학생들의 연령과 형편이 다양해지면서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청 차원의 관련 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들의 출생지와 체류자격 등 배경과 학령기 역시 다양해지면서 학교 적응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 사각지대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는 폭넓게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을 목표로 하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는 전략이다. 성패 여부를 떠나 정부차원의 교육정책이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보다 더 소중한 자원이 바로 이주배경 학생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편집국 25시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



이 대 운
정치부 기자
lty9456@halla.com

희집을 운영하는 지인은 요즘 걱정이 깊어졌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손님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평소 해산물을 즐기는 한 친구도 고민이 많아졌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문제가 없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군침만 삼킬뿐 선택해 산물에 손님이 가지 않아서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5일부터 시작한다. 2차 방류도 1차와 마찬가지로 7800t 분량을 해수로 희석해 방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오염수 총 3만

1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이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수산물 촉진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9일간 진행된 1차 방류를 통해 오염 처리수 약 7800㎥를 내보냈다. 1차 방류 이후 제주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도민 불안 해소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이다.

뉴스-in

제주어로 열린 '소통과 공감의 날' 눈길

“제주어 가치·의미 재조명” “들불축제 준비는 당연”
○...제주자치도가 오는 9일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4일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제주어로 진행해 눈길.
이날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으로 제주어 가수인 양정원 씨가 제주어 노래를 들려줬으며, 범도민안전체협한마당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공감인터뷰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편' 상영, 도지사 당부 말씀, 일선 현장에서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과의 소통 브런치 순으로 진행.
오영훈 지사는 “제주어는 제주를 문화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고 강하게 해 줄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모국어의 더욱 살려주는 토양”이라며 “올해 한글날 기념식에서 제주어의 가치와 의미가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회망. 고대리기자

“들불축제 준비는 당연”
○...고대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애월읍 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시의 들불축제 사실상 준비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언급.
고 의원은 “들불축제는 국내 유일 '불'을 테마로 창안된 축제로 올해로 27년을 맞는 제주의 대표 축제”라며 “생태계 파괴, 환경 훼손 등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과장된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
고 의원은 “목적용지에 2~3시간 불을 지켰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논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제주시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로 환원해 축제의 의미를 더욱 살리고 산불경보 발령 시간과 겹치지 않게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 김도영기자

부 고
김형진(도교육청 장학사) 어머니 양정희 권사(향년 73세)께서 서기 2023년 10월 4일 08시 25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3년 10월 5일(목요일)
▶발인일시: 2023년 10월 6일(금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보성리 선영

남 편 김려춘
아 들 김형진 며느리 고민정
형석 박명숙
딸 김형미 사 위 정성은

※ 연락처 : 김형진 010-8660-6515

부 고
김창수(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어머니 제주고씨 만인(향년 92세)께서 서기 2023년 10월 3일 09시 47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3년 10월 5일(목요일)
▶발인일시: 2023년 10월 6일(금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김창홍 며느리 장정남
창수 이순미
딸 김정열 사 위 최일교

※ 연락처 : 김창홍 010-9368-2240
김창수 010-6798-8821
이순미 010-7296-2052

부 고
상천 강창수 로타리안(숲속의컨벤션 대표,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 회장) 별세 초아의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강창수 로타리안께서 별세하셨기에 로타리클럽장으로 부고합니다
▶일 포: 2023년 10월 5일(목요일)
▶발인일시: 2023년 10월 6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서귀포추모공원

배 우 자 유정민
아 들 강은호

※ 연락처 : 유정민 010-4362-6607
강은호 010-6333-9755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

제9~10대 故 한기팔 회장 제주도문인협회
□ 장례
· 일포: 2023년 10월 5일(목) 서귀포 한빛장례식장
· 발인: 2023년 10월 6일(금) 07:00시
· 장지: 서귀포시 토평동 가족선영
□ 영결식: 2023년 10월 6일(금) 07:30 서귀포칠십리 시공원 (진행 양민숙: 前 제주문인협회 사무국장)
□ 장례집행위원회
▶ 고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종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장례위원장: 제주문인협회 회장 양정형 부위원장: 서귀포시예총회장 안정업 부위원장: 서귀포문인협회회장 정영자
▶ 장례위원: 김선영 제주예총회장. 강운준 제주문학관관장. 김덕환 제주작가회의회장. 김영화 前 제주문인협회회장. 조명철 前 제주문인협회회장. 문대길 前 제주문인협회회장. 고성기 前 제주문인협회회장. 강중훈 前 제주문인협회회장. 김순이 前 제주문인협회회장. 김가영 前 제주문인협회회장. 고은진 前 제주문인협회회장. 박재형 前 제주문인협회회장. 김원우 제주문학회장. 강문신 前 서귀포문인협회회장. 김용길 前 서귀포문인협회회장. 한천민 前 서귀포문인협회회장.
▶ 집행위원장: 윤봉택 前 서귀포시예총회장.
▶ 실무위원: 김순신 제주문인협회부회장. 문상금 제주문인협회 시분과위원장
제주도문인협회서귀포예총서귀포문인협회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중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 단 우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